

제 1회 『매니지먼트』_피터 드러커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4명

2019년 3월 10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자유인문학회 사무실

『언제나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아홉 번째, 자유인문학회 강의 개강에 있어.. "우리의 사업은 무엇인가?"

자유인문학회의 사업은 무엇이며, 학회원 개개인들의 사업은 무엇인가? '매니지먼트'를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고민해 봐야할 질문이다. 매니지먼트란 결국 수단이며, 위 질문에 대한 답이 그 목적이 될 것이다.

'매니지먼트는 왜 중요한가?'

-사회는 조직이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없이 꾸러질 수 없다. 심지어 러다이트 운동을 벌이는 고학력 젊은이들까지도 반드시 조직을 필요로 한다. 오직 조직에서만 지식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벌고 성과를 내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으로 하여금 고도의 성과를 올리도록 하는 것이 자유와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방책이다. 이렇게 조직의 성과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매니지먼트의 힘이다. -중략- 이전보다 더 큰 성과를 올려야 한다. 나아가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과에는 각 조직의 존재나 번영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달려 있다.

매니지먼트의 목적은 '성과'이다. 그 성과는 고도의 분업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즉, 고도의 분업을 위한 시스템 설계가 중요하다.

'매니지먼트 없이는 조직도 없다.'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매니지먼트가 성과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조직이 없으면 매니지먼트도 없다. 그러나 매니지먼트가 없다면 조직도 없다. 한편 매니지먼트는 소유권, 계급,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니지먼트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매니지먼트를 하는 최고 경영자가 부딪히는 상황들은 외부적이며,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매니지먼트는 기업만의 것이 아니다.'

-오늘날 기업의 지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는 기업이 소규모화 되고 있거나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다른 조직이 성장함으로써 사회가 다원화되었기 때문이다. -중략- 이미 시의 수도국이라든지 대학 등에서는 매니지먼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조적이 확대되고 다원화되면 사기업의 지위가 약해진다.

'매니지먼트 붐의 종말.'

-매니지먼트의 붐도 여느 붐들과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꺼졌다. -중략- 가장 큰 원인은 매니지먼트가 만병통치약도 마법의 지팡이도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략- 이렇게 붐은 끝났다. 그러나 매니지먼트는 이미 세계 경제와 사회를 바꾸고 있다. 매니지먼트는 앞으로도 하나의 힘, 기능, 책임, 규범으로 계속 존재할 것이다.

매니지먼트의 붐의 중심이 된 개념은 다음의 일곱 가지였다. 그것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학적 관리법', '연방 분권 조직의 구조', '조직에 적합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인사 관리', '미래를 위한 매니지먼트 개발', '관리 회계', '마케팅', '장기 계획 수립' 등이다.

아이디어, 결정 등은 분업이 안 된다. 분권을 해야 한다. 분업을 위한 분권이다.
기업인이 창조, 세상의 믿음에 관련한 사람이라면 경영자는 고도의 발달한 과학으로 진화론을 바라보는 것과 유사하다.

'새로운 니즈의 출현'

-앞으로는 지식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 육체노동 중심의 과업은 이미 과거의 것이 되어 버렸고 현재 기초적인 자원, 투자, 코스트센터가 되는 것은 지식노동자다. 이들은 육체노동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배우는 여러 가지 것들, 즉 이론과 개념에 따라 일한다. -중략- 오늘날 선진 사회는 경제적으로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더구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는 공급 능력의 차이만이 존재한다.

인류는 이미, 그리고 앞으로 더욱 육체노동에서 해방될 것이며 지식노동이 중요해질 것이다. 사회는 거대한 분류장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류, 지식노동자들은 이론과 개념에 따라 일하게 될 것이다. 또 기존 개도국의 낮은 임금으로 인한 생산성은 기계화로 인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고도화된 사회란 수많은 선택이 존재하는 사회이다. 고도로 다원화 됐음을 뜻하며 그것은 생산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생산은 기업만이 하는 것이니, 고도화된 사회란 결국 기업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매니지먼트 붐의 종말.'

-매니지먼트의 붐도 어느 붐들과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꺼졌다. -중략- 가장 큰 원인은 매니지먼트가 만병통치약도 마법의 지팡이도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중략- 이렇게 붐은 끝났다. 그러나 매니지먼트는 이미 세계 경제와 사회를 바꾸고 있다. 매니지먼트는 앞으로도 하나의 힘, 기능, 책임, 규범으로 계속 존재할 것이다.

매니지먼트의 붐의 중심이 된 개념은 다음의 일곱 가지였다. 그것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학적 관리법', '연방 분권 조직의 구조', '조직에 적합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인사 관리', '미래를 위한 매니지먼트 개발', '관리 회계', '마케팅', '장기 계획 수립' 등이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니지먼트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매니지먼트를 하는 최고 경영자가 부딪히는 상황들은 외부적이며,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매니지먼트의 세 가지 과제.'

-매니지먼트는 과제를 가지고 조직을 정의해야만 한다.

- *조직 특유의 사명을 완수한다.
- *일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활을 유지시킨다.
-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인식하고 사회에 공헌한다.

'시간 요소'

-시간은 매니지먼트에서 하나의 차원으로 취급해야 한다.

이전의 강의들이나 미제스를 통해 충분히 시간이 귀중한 자원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다.

-오늘날에는 경제에 관한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환경이나 자원에 끼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야만 한다.

사회가 고도화, 분업화되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관리적 활동과 기업가적 활동'

-매니지먼트를 논할 때 그것의 업무와 조직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다. 이는 지나치게 기술 관료적인 발상이다. 매니지먼트의 업무와 조직은 그 자체로 절대적이거나 무조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목적이 되는 과제에 의해 결정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두 축 : 생산은 시장의 자율기능을 통해 이뤄지고 분배는 매니지먼트를 통해 이뤄진다.』